

# 쉽게 가는 정치학 최승호 강의계획서

## 2순환 핵심 미션 : 정치학 Core Memory, 핵심 기출 및 예상문제를 위한 2025년도 “최신 사례” 확인

### ■ ■ 담 당 최 승 호

■ ■ 강의일정 2025년 12/30(화) ~ 2026년 1/14(수), 총 14회  
※ 수강생과 협의를 통해 주5일 강의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 ■ 시 간 [오후 실강반]  
1) 시험이 없는 날: 1시 30분 ~ 6시  
2) 시험이 있는 날: (시험) 1시 ~ 2시 / (강의) 2시 ~ 6시

■ ■ 강의교재 ▶ 쉽게 가는 정치학 최근 사례 모음(매일 제공)  
※ 반복적으로 출제되고 있는 주요 주제를 최근 한국행정 현실을 통해 적용해 볼 수 있는 사례 모음 자료  
※ 기존 수강했던 강의나 교재와 관계없이 호환성을 가지고 이론과 현실을 연결하여 주는 사례 모음 자료

■ ■ [강의목표  
혹은 강의특징] 1. 수험 정치학 접근방법의 기본(ABC) 잡기!  
1) 1단계 : 흐름 이해를 통한 주소 확인(Address)  
2) 2단계 : 내용 정리와 사례 적용을 통한 블록 완성(Bloc)  
※ 블록(Bloc)은 정치학의 수평 흐름과 수직 흐름을 이어주는 교량  
3) 3단계 : 답안 작성을 통한 문장구성 연습(Construction)  
2. 수험 강의의 기본(강사와 수강생의 협업) 찾기!  
1) 강사의 방향잡기와 수강생의 노젓기라는 협력을 지향하는 강의  
※ 수험 방향성에 있어 여전히 혼란을 겪고 있는 수강생에 대한 강사의 심층 면담  
2) 격일로 진행되는 모의고사 답안에 대한 강사의 개인별 직접 상담  
※ 체점자가 아닌 본 강사가 직접 답안 피드백을 개인별 2회 진행  
3) 원하는 수험생을 대상으로 강사가 직접 스터디 그룹 운영  
※ 자율적으로 1차나 2차 스터디를 진행하려는 경우 강사가 시간 스케줄 관리

■ ■ [공부방법, 합격수기]

1. 합격생 정00 : 행정학은 수험기간 끝까지 저를 괴롭히던 과목이었습니다. 행정학도로서 학부 4년 간 행정학 전반을 배우고, 수험기간 동안에도 수많은 강의를 들었으면서도 행정학이 가장 힘들었으니 아이러니한 일이죠. 그러던 차에 가장 마지막으로 찾아가 도움을 구했던 강의가 최승호 선생님 강의였습니다. 2014년 재경 1차에 떨어지고 직렬을 돌리기로 마음을 먹고, 신림동에 와서 정말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최승호 선생님 예비순환 행정학 강의를 수강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이 지금 제가 이렇게 수기를 쓸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최승호 선생님의 강의는 다른 선생님들과 달리 논문과목 전반을 보는 시각을 갖도록 돕는 탁월한 강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행정학을 주제마다 분리되어 있는 암기과목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행정학의 큰 그림을 도식화해서 보여주며 이해하는 과목으로 접근하는 강의는 행정학 학사인 제게 새로운 행정학을 보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행정학에 매우 고득점을 받지는 않았습니다. 머릿속으로는 이해하지만 이를 글로 표출하는데 미숙했기 때문입니다. 머릿속으로 알고 있는 것과 알고 있는 내용을 글로 써내려가는 것은 '전혀' 다릅니다. 2차과목이 논술인 이상 자신이 아는 것을 열심히 글로 써보고, 선생님께 피드백을 받고 했어야 했는데, 저는 머릿속으로만 이해한 채 선생님께 답안을 들고 찾아가서 첨삭을 받는데 소홀했었습니다. 공부하시는 분들께 권해드립니다. 꼭 자신의 맨 얼굴인 답안을 열심히 쓰고, 이를 첨삭 받고 다시 수정하는 지난한 작업을 꼭 하세요. 논문과목 전반에 있어 점수를 올리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2. 합격생 송00 : 행정학, 정치학, 정책학은 처음 공부할 때 상당히 혼란스러운 부분이 많았습니다. 최승호 선생님 말씀을 빌리자면 과목들의 특성상 'the answer' 가 아니라 'an answer' 를 요구하고 있어서 모호한 부분이 많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많은 학생들이 어려워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최승호 선생님의 교수방식이 조금 특이한 부분이 있어서 처음에 좀 더 어렵게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선은 배부된 자료를 한 번 읽고, 당일 무엇을 배웠는지 이해하는 것에 중점을 두어 공부를 했습니다. 선생님의 특이한 필기 방식을 처음 접했을 때 복습이 너무 금방 끝나는 것에 당혹스러웠는데, 이 경우에는 필기 내용을 이루는 논문을 함께 같이 읽으면 좋았습니다. 제 경우 1년차 2순환에 이르러서야 방식이 익숙해졌는데, 이때부터는 선생님 필기를 각 주제별로 나누어 정리하고 선생님께서 항상 강조하시는 것처럼 '최소한으로 최대한을 쓰기 위한 공부' 를 했습니다. 즉, 각 개념별로 의의와 내용을 외우는 것이 아니라, 다수의 개념을 아우르는 거시 또는 중범위의 개념을 파악하고, 그 내용을 통해 보다 미시적인 다양한 개념들을 설명해내는 것을 목표로 했습니다. 이를 통해 논문과목에 대한 부담을 줄이는 것이 가능했고, 비교적 빠른 시간 내에 합격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았나 하고 생각합니다.
3. 합격생 박00 : 경제학이나 행정법과 구별되는 행정학의 특징은 이해보다는 훈련과정이 더욱 어려운 과목이라는 점이다. 시험공부는 일단 과목의 내용을 이해해야 하고 다음으로 이해한 내용을 답안지에 옮기는 훈련을 해야 한다. 사람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나에게 경제학과 행정법 두 과목은 훈련보다는 이해가 어려운 과목에 속한다. 이해하는 데는 많은 노력이 들지만 일단 이해한 후에는 답안을 정해진 방식대로 쓸 수 있어 답안 작성이 비교적 수월하다. 그러나 행정학과 같은 논문과목들은 반대로 내용자체를 이해하는 것이 어렵지는 않으나 답안을 쓰는 것이 어려운 과목이다. 문제가 질문하는 방식이 일정한 방향성을 제시해주는 하지만 비교적 넓은 틀 안에서 답안이 재량적으로 작성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과목에 있어서 효율적인 공부방법은 무조건 많은 책과 논문을 읽어서 깊고 널리 알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읽은 내용을 답안으로 구성하는 것을 훈련하는 것이라 생각한다. 선천적으로 글을 잘 쓰는 재능을 타고나지 않았다면, 훈련의 과정은 필수적이다. 나 역시 글쓰기에 크게 소질 있는 편이 아니어서 답안을 논리적으로 구성하는 것을 연습해야 했다.

## 진도별 강의내용(진도별 핵심논점)

강의회차	날짜	강의 내용(※단일 주제가 아닌 복합 주제)	시험
■ 제 1 회	12월 30일(화)	민주주의론 1	
■ 제 2 회	12월 31일(수)	민주주의론 2	
■ 제 3 회	1월 1일(목)	민주주의론 3	0
■ 제 4 회	1월 2일(금)	민주주의론 4	
■ 제 5 회	1월 3일(토)	비교정치론 1	0
■ 제 6 회	1월 5일(월)	비교정치론 2	
■ 제 7 회	1월 6일(화)	비교정치론 3	0
■ 제 8 회	1월 7일(수)	비교정치론 4	
■ 제 9 회	1월 8일(목)	비교정치론 5	0
■ 제 10 회	1월 9일(금)	비교정치론 6	
■ 제 11 회	1월 10일(토)	국제정치론 1	0
■ 제 12 회	1월 12일(월)	국제정치론 2	
■ 제 13 회	1월 13일(화)	국제정치론 3	
■ 제 14 회	1월 14일(수)	국제정치론 4	

※ 수업 내용은 상황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